증권사 공매도 위반에 뿔난 개미들 "불법 근절대책 강구"

오늘 한투연 불법 공매도 규탄 집회
내부통제 강화 등 경각심 가져야
금감원에 공매도 조사 전담팀 신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형 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금융당국이 실효적인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릴 때 주로 사용된다.

◆공매도 규정 위반…"단순 실수" vs "고의성 의심"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의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는 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불법 공매도 규탄 및 공매도 개혁 촉구 집회'를 연다. 한투연은 ▲전 증권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불시 주식 총량 조사 ▲상환기관, 담보비율 통일 등 공매도 개혁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조직 신설 등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공매도는 유동성 공급, 주가 거품 방지 등 순기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불법 공매도와 연관된 사고가 잇달아 터지며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워왔다. 지난 2018년 삼성증권의 배당오류에 따른 '유령주식', '무차입 공매도(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파는 것)' 논란이 일면서 다. 낮은 처벌 수위도 금융당국의 불신을 가중시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10억원), CLSA증권(6억원), 메리츠증권(1억9500만원), 신한금융투자(7200만원), KB증권(1200만원) 등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업틱룰 위반, 무차입 공매도 등 흔히 알려진 불법 행위가 아닌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매도 기간과 거래량 등을 고려했을 때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실수 또는 단순 착오라고 주장했을 때 사실상 고의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며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증권사들도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불법 행위 근절 공언… '제도 불신' 불식시킬까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도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이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달라"며 당부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들어간다.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되면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신속 수사전환(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 처벌하고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을 박탈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대차거래 모니터링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기회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공매도 목적으로 90일 이상 장기대차 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인 종목에 대해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나아가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120%로 낮추고 증권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대상의 대차거래를 활성화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신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이)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허용됐으나, 신용도의 문제로 인해 개인이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증권사들로부터 물량을 확보해 증권금융이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의 주문에 따라 실시간 매매가 가능토록 하는 신용 거래대주 시스템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 강화 위주의 후행적 방안은 다소 아쉽다"고 덧붙였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실적 '뚝' 화장품株… 하반기 목표주가 '희비'

LG생활건강 목표주가 상향조정
아모레퍼시픽, 195억 영업손실

화장품업종 대표주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시장 봉쇄 장기화에 타격을 입으며 올 2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실적 회복세가 먼저 나타난 LG생활건강에 대해서는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한 반면, 아모레퍼시픽의 목표주가에 대해서는 잇따라 하향조정을 결정해 관심을 받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LG생건과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발표한 올 2분기 실적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생건은 2분기 영업이익으로 2166억원, 당기순이익은 12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5%, 44.3% 감소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분기 매출이 94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6% 감소했다. 또한 영업손실이 195억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2분기 영업이익(1580억원)을 기록한 것과 달리 적자로 돌아섰다. 매출 비중이 높은 중국 내에서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가 길어지면서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국내 화장품 대표 관련주인 두 회사는 엇갈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LG생건은 지난달 말 종가 기준 68만원에서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29일 77만9000원에 마감하면서 14.56% 올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아모레퍼시픽은 13만원에서 0.77% 내린 12만9000원에 마감했다. 두 회사의 실적 회복세에 차이가 발행하면서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두 회사의 전망도 엇갈렸다.

LG생건은 컨센서스(증권사 예상치의 평균값)를 상회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하누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영업이익 2166억원가 컨센서스 대비 8% 시장기대치를 상회하면서 회복이 빠르게 나타났으며, 바닥을 다졌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주력채널인 면세매출과 핵심 브랜드인 '후'가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각각 104.1%, 36.3% 늘어난 점 ▲수익성 개선 ▲중국 봉쇄 해제 기저 효과 등을 꼽으며 향후 전망을 높게 평가했다. 이에 목표 주가를 직전 8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 외에도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 총 6개사에서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반면, 아모레퍼시픽은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밑돌았다. 매출액은 컨센서스 대비 7.2% 하회했으며, 489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19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박은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은 시장 이익 눈높이를 크게 하회했다"라며 "상해 봉쇄 여파로 중국, 면세 매출이 급감했으며 그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가중됐다"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ysl@

2분기 부진에도 하반기 수익개선 기대

metro 관심종목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2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으나 하반기에는 완성차 생산 증가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모비스의 2분기 실적은 매출 12조3000억원, 영업이익 4020억원이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28.8% 감소, 영업이익 기준 컨선세스를 13.2% 하회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차 믹스 개선 효과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코로나 격려금 약 750억원, 배터리 시스템 관련 비용 약 240억원 등이 일회성 비용으로 발생했으며 원자재 가격, 운송비 증가가 2분기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분석했다.

지난 29일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00원(0.22%) 하락한 22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시장 전망치에 못 미친 2분기 실적에도 이달 들어 14% 오르며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미국 조지아주 정부가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현대차에 2조원대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소식에 지난 25일 자동차 부품주인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7500원(3.43%) 오르기도 했다.

완성차 생산량 정상화에 따른 가동률 개선이 기대되자 증권사는 현대모비스의 하반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원관희 기자 wkh@

이달 전국 13개 단지 5434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8월 첫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총 5434가구(일반분양 499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하우스토리어반그린', 대구 서구 비산동 '힐스테이트서대구역센트럴', 전남 무안군 일로읍 '무안오룡지구우미린1·2차'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대구 북구 읍내동 '화성파크드림구수산공원', 강원 원주시 원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원주' 등 4곳에서 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대구 서구 비산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서대구역센트럴'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9층 주상복합 단지로 오피스텔 1개동(75실)과 아파트 5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 기준 전용면적 84·102㎡, 총 762가구 규모다.

단지는 팔달로, 신천대로 등을 통해 대구시내로 이동이 수월하다. 대구지하철 3호선 팔달시장역과 KTX 서대구역 이용도 편리하다.

두산건설은 강원 원주시 원동 일원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원주'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14개동, 전용면적 29~84㎡, 총 116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95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에서 남산공원, 원주천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명륜초·원주고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주시 보건소, 원주자유시장, 원주종합운동장 등 생활인프라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김대환 기자

부동산시장 혼조세에도 '학군지' 인기 여전

'사직 하늘채' 평균 경쟁률 112대 1

전국 부동산 시장에 혼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수한 학군을 갖춘 소위 '학군지'의 강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3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학군지에 공급된 단지는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이 부산 대표 학군지 중 한 곳인 동래구 사직동에서 지난 달 분양한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는 1순위 55가구 모집에 6171명이 몰리며 평균 112 대 1의 경쟁률로 청약 마감됐다.

'한화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조감도. /한화건설

인천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학군으로 평가받는 송도 1공구에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더샵 송도아크베이'는 1순위 486가구 모집에 2만2848건의 청약이 접수돼 조기 완판됐다.

/김대환 기자 kdh@